

尹 정부의 오판인가, 이재명의 착각인가

태평로



배성규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나무다리에서 마주 섰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지난번 대장동 비리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비리가 더 확실한 카드라고 한다. 하지만 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이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에 실려 갔다. 이 대표 구속 여부가 총선까지 정국을 흔들 뇌관이었다.

검찰은 혐의가 확실해 체포동의안만 가결되면 영장 발부는 자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수사는 벌써 2년째로 피로감이 크다.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게 맞느냐’고 묻는다. 검찰이 이 대표 단식 중에도 영장을 친 것은 미루지 않고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치에는 타이밍과 감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범죄 피의자라도 생명과 관련된 일이면 사정을 봐주는 게 관례다. 단식 19일째에 영장을 친 것은 가혹해 보인다. 당장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권’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 대표도 이런 상황에 주목했을 것이다. 그는 2년 내내 10여 가지 비리 혐

의를 수사 받았다. 방탄을 위해 국회 의원·대표에 출마하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했다. 역대 이런 야당 대표는 없었다.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하자 ‘별체포 권리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게 다시 족쇄가 됐고 마지막 찾은 돌파구가 단식이었다. 소환 통보 직후 단식을 시작하고 영장 청구 때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 타이밍이 절묘했다. 미리 지정한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단식도 이어간다고 한다.

친명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무도한 검찰과 싸우자”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렸다. 친명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무도한 검찰과 싸우자”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렸다. 친명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무도한 검찰과 싸우자”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렸다.

이런 속내를 모를 리 없을까. 영장 청구가 물고 올 야권 내부의 거센 반발과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를 충분히 예상했

을 것이다. 오히려 이 대표와 민주당을 ‘방탄 지옥’으로 몰아넣을 묘수로 여겼을 수 있다. 당장은 윤 정부가 옥먹겠지만, 그 결과는 ‘방탄 민주당’ 고착화와 이 대표 체제 6개월 연장이라고 봤을 것이다. 이 대표가 공천권을 휘두른다면 여당이 두려워하는 민주당의 쇠신과 젊은 지도부의 등장도 현실화하기 힘들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리더십 위기가 재연될 것이다. 이 대표 구속 실패가 오히려 여권엔 총선 승리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윤 정부가 총선에 이기는 비박적인 길은 노동·교육·연금·공공·규제·산업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개혁 성과도 미흡하다. 새 인물 공천 또한 불확실하다. 그래서 여권엔 내심 이 대표 방탄 체제가 유지돼 그 반사이익을 얻기를 바란다. 이재명 민주당은 총선까지 총력 투쟁을 외치며 극한 대처로 가려 할 것이다. 윤 정부의 국정도 발목 잡히게 된다. 나라엔 나쁘지만 여권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이 대표가 살 길은 단식과 방탄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착시다. 6개월 정치 생명 연장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리더라면 약속대로 영장심사에 나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혐의를 벗으면 당당하게 새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민주당과 나라에도 좋은 일이다.

김준의 맛과 섬 [156]

인천 영종도 연포탕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장 밖으로 붉게 변해가는 칠면초를 만났다. 이제 가을로 가는 모양이다. 칠면초 서식지 갯벌을 경계로 조간대 상부에 농게가, 하부에 칠게들이 많이 서식한다. 몇 년 전까지 이곳에는 플라시드 톱을 빼곡하게 묻어 칠게를 잡기도 했다. 다행스럽게 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불법 어구들은 사라졌다. 영종도뿐만 아니라 서해 갯벌 곳곳에 칠게가 살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깃대종으로 손색이 없다. 칠게를 정말 좋아하는 생물이 나지다. 칠게가 많은 갯벌에 나지다 많다. 이런 먹이사슬 때문에 칠게를 미끼로 ‘주낙’이나 ‘통발’을 이용해 나지를 잡는다. 영종도의 오래된 나지잡이 어법은 통발이나 주낙이 아니라 ‘붙임나지’이다. 먼저 나지 서식권을 찾아 조심스럽게 호

미로 파헤치면 맑게 고인 물이 나타난다. 감지와 중지를 잘라낸 장갑을 낀 손을 구멍으로 집어넣는다. 굴 안에 머물던 나지가 긴 다리를 내밀고 망둑어로 착각한 것인지 손가락을 지나 손안으로 들어온다. 이때 재빨리 잡는다. 그래서 붙임나지라고 한다. 붙임나지는 봄보다는 가을에 많이 한다. 봄에는 목이 길고 날이 뾰족한 나지호미를 이용해서 잡는다. 초차가 큰 영종도 조간대 상부 갯벌은 단단하다. 그래서 날카롭고 목이 긴 호미로 서식굴의 흙을 때내서 집거나 붙여서 잡는다. 봄보다 가을에 붙임나지가 유용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영종도 주민들은 낚시에서 나지를 잡고, 모래 갯벌에서 동족과 맛을 잡았다. 그렇게 잡은 나지는 살아 있는 채로, 동족과 바지락 등 조개는 살아서 조갯살을 말려 만석부두로 가지고 나가



팔았다. 말린 조갯살은 주로 중국집에서 가져갔고, 살아 있는 나지는 상인이 가져갔다. 나지를 잘 잡는 사람은 하루에 100여 마리를 붙여 잡았다. 인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갯벌은 영종도 사람들에게 일터였다. 그때 잡은 나지로 즐겨 먹었던 것이 연포탕이다. 영종도의 연포탕에서 그때 먹었던 연포탕을 만났다. 남도에서 식사를 위한 탕으로 먹는 연포탕과 달리 영종도 연포탕은 육수에 채소를 넣고 끓이다가 살짝 데쳐 먹는다. 나지볶음보다 연포탕을 즐겼다고 한다. 예단포 산책길에 삼천재 섬으로 가는 노을이 아름답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비리 혐의 민주 의원들, “탄압” 거짓말을 그토록 결연하게 했다니

민주당 전당대회 후 분위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이 법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그동안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범들의 자백이 이어지자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며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사람이 부정 비리가 드러나면 부인하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도가 있다. 이들은 거짓말을 ‘결연’ 한 태도로 하면서 “조작” “탄압”이라고 도리어 화를 내며 공세를 편다.

윤 의원은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며 망신 주기” “총선용 짜맞추기 기획 수사”라고 했다. 이성만 의원은 “녹취록이 편지됐다”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은 모르는 일로 야당을 표적 삼은 정치 수사”라고 했다. 민주당 인사들도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도 “그런 일 없다” “어른 재판용 낙인찍기”라고 했다. 이들이 ‘돈 봉투’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토록 거짓말을 쉽게,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지 놀랍다.

돈 봉투 수사는 검찰이 시작한 것도 아니다.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발단이였다. 녹음엔 “봉투 10개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겐 전달해 달라”는 등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과 돈을 제공한 스폰서, 중간 전달책 등이 줄줄이 돈 봉투 수수 사실을 자백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녹취록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상식 밖의 주장까지 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자진 출두 쇼까지 벌였다. 정작 휴대전화는 기록을 없애서 제출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단식까지 하는 이재명 대표는 과연 다른냐는 의문이 든다. 대북 송금은 관련자 대부분이 혐의를 시인하는데 혼자 아니라고 한다. 노웅래 의원도 돈과 청탁이 오가는 대화 녹음이 나왔지만 “탄압”이라고 한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20명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비리 수사 때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 주장을 하고 검찰에 역공 화살을 돌리는 게 일상이 됐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불리해질 것 같을 때에만 혐의를 인정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수산물이 방사능 범벅이 될 것처럼 국민 앞에 주장해놓고, 자신들은 횡집에서 단체 회식을 하고 ‘잘 먹었다’고 사인까지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도 지지층은 굳건하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동영상 시청

공무원 몇 사람만 저항했어도 文 정부가 통계 조작 못 했을 것

문재인 청와대의 집값·소득·분배·고용 통계 조작에 대해 문 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사·작성에 참여하는 수많은 공무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나와 있다. 문 정부 측의 부인은 공무원들이 늘 그렇듯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는 물론 국토부·통계청 소속 공무원 모두가 한 몸이 돼 통계 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조작을 외부에 알린 사람들은 한 국부동산원 노조뿐이었다. 그마저 폭로나 고발이 아니라 경찰청 정보 라인에 비공격적으로 흘리는 형태였다.

공무원이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에 따르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다. 그런데 수많은 공무원이 통계법을 위반해 청와대 주문에 따라 숫자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수사 의뢰된 고위 공무원만 13명에 이른다. 실무진까지 합치면 통계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은 될 것이다. 이들 중 몇 사람만 불법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면 문 정부가 5년 내내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통계 조작뿐 아니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들고 나오자 주무

부처인 산업부 관료들은 이를 막기는 커녕 앞장섰다. 대통령 입맛에 맞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뒤 7000억원을 들여 새 설비나 다름없이 보수한 월성 1호기를 멈춰 세웠다. 담당 과장이 잠시 주저하기도 했지만 장관이 “너 죽을래”라며 다그치자 곧바로 백기 투항했다. 산업부 실무자들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관련 문건을 모조리 삭제했다. 담당 서기관은 ‘누구 지시였느냐’는 검찰 추궁에 “신(神) 내림” 운운하며 황당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문 정권이 중국에 군사 주권을 내주는 ‘3불(不) 약속’을 했을 때 공직자 누구 하나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4대강 보 해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들이 보 해체의 경제성 평가를 엉터리로 하는 걸 뻔히 보고서도 못 본 척 방관했다. 문 정부 초기 청와대가 국가 채무 비율 수치 조작을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하자 기재부의 30대 초반 사무관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외부에 알렸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들은 몇 사람 나오지 않았다. 공무원 개인에게는 자리를 지키고 승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 승진시켜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다.

‘잃어버린 30년’ 진입 직전 한국 경제, 산업 대전환 절실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을 따라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 당시 일본이 겪었던 저출산 고령화, 과도한 부채, 높은 부동산 가격 등의 징후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2%대)보다 낮은 1.4%로 예상된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간 누적 무역 적자가 254억달러에 달한다. 내수도 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불황으로 볼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인구 고령화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가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미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중국도 저성장에 접어들었다. 25년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끝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2030년대가 되면 잠재 성장률이 0%

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OECD는 예상했다. 민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된 ‘산업대전환 포럼’이 ‘6대 미션, 46개 과제’를 선정해서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지난 20년간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든 만성 질환자와 같다고 진단했다. 혁신·인재·연구개발(R&D)의 ‘3대 결핍’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대전환이 절실하다. 머뭇거리기 시간도 없다. 경제 체질을 바꿔 투자 특국(特國), 인재 입국, 혁신 부국, 기업 강국을 만드는 것만이 ‘잃어버린 30년’을 피하는 길이다. 한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모두가 다 아는 이 해법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막는 ‘불능 정치’ 때문이다. 정치의 함정을 빠져나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통계 조작', 조지 오웰이 경고한 '역사 위조'와 뭐가 다른가

'전체주의 괴물' 되더니, 국가통계 주저 없이 마구 조작 | 문재인 일당, 소설 <1984> <프랑켄슈타인>을 현실로 만든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엽기적 통계조작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최소 94차례에 걸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부장은 “체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린다”라고 협박했다. 감사원이 들춰낸 문재인 일당의 엽기적 [가짜 현실] 만들기 민낯이었다.

저들의 [진짜 현실] 지우기와 [가짜 현실] 만들기들 바라보자니,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역사 위조 장면이 연상된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의 소임은 당이 명령하면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는 일이다. 예컨대 그의 나라 오세아니아는 수년째 적국 유라시아와 전쟁을 해왔는데, 여차하면 적국을 동아시아로 바꿔치기 해야 한다.

나아가 그 이전에 있었던 기록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는 양 만들어 놓아야 한다. 새로 쓴 역사를 인민의 뇌(腦)에 주입해야 한다. 공포와 세뇌로, 그래서 인민의 뇌를 당이 바라는 대로 조작(操作)하고 구식(舊式)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프랑켄슈타인'

설마하니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그럴 수 있다. 스탈린의 소련과 오늘의 북한에서 인간은 당이 바라는 좀비로 얼마든지 제작될 수 있다. 심지어는 괴물 프랑켄슈타인으로도 변조될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은 영국 시인 셸리의 부인 메리 셸 리가 처음 제작했다. 그녀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도입부는 이렇다.

“반쯤 꺼져있는 등불의 불빛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누런 눈을 보았다. 괴물은 거칠게 숨을 쉬며 경련하듯 팔다리를 떨고 있었다.” 인간이 만든 괴물 출현이다.

그런데 이 <괴물>이 2017~2022 기간의 한국에서도 공공연히 제작되었다. [2000년대 디스토피아] [가짜 유투피아] 스텐들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일당이 자행한 [국가통계 조작]은, 바로 윈스턴 스미스가 한 [역사기록 위조]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괴물화 된 운동권

저들은 어떻게 김희 [가짜 조물주] 노릇을 할 착상을 했을까? 저들의 실패를 감추고 업적을 꾸며내기 위한 알파한 잔꾀? 그러나, 그 이전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고방식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사실과 진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좌의 운동권이 필요에 따라 자의(恣意)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오만과 방자, 다시 말해 [강주주 사냥]이 그것이다.

소설 <1984>에서 [가짜 현실] 창조는 윈스턴 스미스가 속한 진리부(眞理論)가 맡아 한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연속 ▲무지는 힘, 하는 식으로

한국 운동권은 국민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이미 거기까지 갔었다. 민주화운동 합대 하며, 그들은 실재론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수태·분만하려 했다. 그것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지독한 성능의 괴물들.

이른바 진보로 변장한 전체주의 괴물

◎ 그들은 좌익이 되려면 읽어야 하는 난해한 마르크스-레닌 원전(原典)을 읽지 않고도 쉽게 운동권 자격증을 딸 방법을 찾았다. 방중에 이어폰만 끼면 되는 방법들.

그것으로 해주에 있는 <민족민주전선 방송>을 받아 적으면 땀이었다. 삼류 극좌 NL, 떨거지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 그들은 가장 지독한 성능의 괴물들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깰고 부당하는 극좌 전체주의 일당 독재 모델을 갔다. 온건 사회민주주의 등 중도적 진보까지 적대했다.

그로부터 40~50년 후 그들은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권력자가 되었다. 어떤 자유 진영 의원이 그중 한 자에게 물었다.

“당신 아직도 그런 사람이냐?” 그의 대답은 이렇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르짖을 때 당신은 뭐 했느냐?”

곧 죽어도 [자유를 뺀 민주주의 = 인민민주주의]만 고집하겠다는 소리였다.

그런 자들인지라 국가통계도 주저 없이 조작한다. 소설 속 [진리부]가 작동한 셈이다.

그대 이름은 그래서 ▲ 전체주의 괴물 ▲ 프랑켄슈타인 괴파 ▲ 잡범 괴파 ▲ 뇌물 괴파 ▲ 조폭 괴파 ▲ 성범죄 괴파 ▲ 국가 위괴파 ▲ 돈 봉투 괴파.

진보 좋아하네.

류근일 칼럼 더보기 ▼

끝까지 파헤쳐라... 뉴스타파-JTBC가 좋은지 아닌지	송스기 배다 박은 민주당의 위선... 북한인권재단 해방 7년째
--------------------------------	------------------------------------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9월 17일 게재 되었습니다.